

#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강 영 봉\*\*

## I

방언 자료 수집은 목적에 따라 조사 항목이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1차적인 조사 대상은 어휘이다. 이 어휘가 조사 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어휘 분야는 다른 영역 즉 음운론,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독자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미론적인 방법과 태도를 수용하는 한계내에서 제주방언의 몇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방언 어휘에 접근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제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지역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어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어휘 그리고 지시 대상물은 분명 다르나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어휘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어휘들은 제주도방언지도 작성을 위하여 조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제주도 전역을 섭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는 무시하기로 한다. 다만 제보자의 연령층을 밝혀 의미 차이가 드러남을 보이고자 한다.

편의상 방언형은 일반적인 음성표기로 전사하는데, 다만 아래아(·)는 ㅁ로 옮긴다.

---

\* 이 논문은 1993년도 제주대학교 자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II

2. 1. 독특한 의미로 쓰이는 어휘를 먼저 보기로 하자.

이들 어휘들은 표준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표준어하고는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들이다.

① pakk<sup>h</sup>ŋ

형태상으로 (밖+의)로 분석되어 밖(外)의 뜻이 예측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 곧 육지를 말한다. 이는 제주도가 처한 지역성과 한계성에서 연유하는 관념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다른 도서 즉 유인 도서인 우도·비양도·마라도 등지에서 제주도로 나오는 것을 말할 때도 가끔씩 쓰이기도 한다. 이는 적용의 확대로 해석된다.

② san

젊은층에서는 산의 뜻으로도 쓰이나 장년층에서는 항상 뒤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뒤편을 san-s'ida, 뒤편자리를 san-t<sup>h</sup>a, 뒤편자리를 찾아나서는 것을 kusan-hoda로 발화하는 것으로 보면 뒤편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제주도에는 기생화산이 330여개가 있으나 산이 붙은 명칭은 몇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오름 또는 봉이라 이름하고 있어 산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뒤편을 san이라 부른다는 해석을 내리는 제보자도 있었다. 억측이긴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보상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③ samc<sup>h</sup>un

삼촌의 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쓰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형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차이가 생길 때 부르는 호칭이다. 촌수에는 관계가 없고 동네 어른을 가근하게 부를 때 이 호칭이 사용된다. 5촌 또는 7촌이라도 samc<sup>h</sup>un이라 부르고, 굳이 구분하고 싶으면 oc<sup>h</sup>un-samc<sup>h</sup>un, ch'ilc<sup>h</sup>un-samc<sup>h</sup>un이라 부른다.

④ kusil-hoda

천연두에 걸리다. 월경하다는 뜻이다. 형태분석이 {구실+하다}이니 구실의 뜻이 충실하게 확대 적용된 결과다. 구실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남녀 구분없이 쓰이면 천연두에 걸리다로, 여자라면 월경하다는 뜻으로 쓰여 몸하다에 해당한다.

⑤ pa-hōda

나이 많은 사람이 죽다라는 뜻이다. 젊은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한자어 跛에 접사 {다}가 연결되어 독특한 의미를 형성한 예다. 간혹 pe-hōda가 발화되기도 하는데, 다같이 높임말에 해당한다.

죽다의 의미로 moksum-k'inōcida, moksum-t<sup>h</sup>acida, sum-k'inōcida, sum-t<sup>h</sup>acida가 쓰이는데 이는 예삿말이다.

제보자의 연령층에 따라 노년층에서는 pa-hōda/pe-hōda, 장년층에서는 moksum-k'inōcida/moksum-t<sup>h</sup>acida/sum-k'inōcida/sum-t<sup>h</sup>acida가, 중년층에서는 tolagasida가 빈번하게 쓰인다.

2.2. 의미의 세부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를 보기로 하자. 이 세부적인 차이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주관성이 들어가 그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위의 한계, 용도, 상태, 지칭 등 다각도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유지될 것이다.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발화된 문장을 중심으로 그 의미 차이를 발견한다면 어떠한 위험성에서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① kim/kimit : kom

kim/kimit은 그어진 선이나 접힌 자국을 뜻하는 반면, kom은 경계가 되게 줄을 친 자국의 뜻이다. 구분·경계라는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kim/kimit은 어떤 면에 그어진 선, 물건에 생긴 접힌 자국, 물체의 갈라진 자국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자국은 가늘어야 한다. 어원으로 볼 때 중세 어휘 뾰과 깊은 관련이 있다. kom은 경계를 짓기 위해 줄을 친 자국이니 반드시 가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일정한 면적을 차지한다. kop-karida의 kop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kim/kimit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kom은 그 kom을 경계로 하여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장·노년층은 확연하게 구분하나 중년층에서는 그 구분이 불명확하다.

② mæri-tʰəl/mæri-tʰærək/mæri-k'ærək : hæundegi

이미 조사된 자료집에는 mæri-tʰəl/mæri-tʰærək/meri-k'ærək은 머리털로, hæundegi는 머리털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되어 있다. 예삿말이나 낮춤말이나는 차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확연하게 구분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머리털이나 여성의 머리털을 hæundegi라 말하고 있다. 은연 중에 머리털의 길이와 상관 있다는 제보이기도 하다. 실제 여자들이 싸움할 때를 hæundegi tʰidiməŋ s'awamcəra 하는데 이때 hæundegi가 바로 머리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분명 길이와 상관이 있어 보인다. 또 머리털이 가지런하지 않기는 긴 머리털이 쉽다. 좀더 길면 hæundegi이다.

사용 범위가 다같이 남녀 모두에게 쓰이기도 하나 hæundegi는 여성에 더 가깝다. 이 어휘는 중년층 이하에서는 들을 수 없다.

굳이 구분하다면 mæri-tʰəl/mæri-tʰærək/mæri-k'ærək은 머리털에, hæundegi는 머리체에 해당될 것이다.

③ mok : jage/jagegi

몸체와 머리를 이어준다는 기능면에서는 같으나, 위치에서는 차이가 난다. 곧 앞쪽이면 mok, 뒷쪽이면 jage/jagegi이다. 목-메다를 mok-kælda, jage-kælda라 하는 것을 보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ogamci simk'o s'auda(이때 mogamci는 mok의 낮춤말이다)에서는 분명 앞쪽을, jage siməŋ tʰilətcu에서 jage는 뒤쪽이다.

노년층에서는 구분하나 중년층 이하에서는 mok을 예삿말로, jage/jagegi를 낮춤말로 인식하고 있다.

④ pugillegi/puk'ullegi : kek'um

pugillegi/puk'ullegi나 kek'um은 다같이 거품에 해당되나, pugillegi/puk'ullegi는 기체를 머금어서 속이 비어 둥글게 부푼 방울이라면, kek'um은 입가에서 내뿜어진 속이 빈 방울을 뜻한다. 곧 [+유정성]과의 관련은 kek'um이, [-유정성]과는 pugillegi/puk'ullege가 연결된다.

⑤ pulcʰi : ce

pulcʰi는 검부레기 따위를 태우는 데서 생긴 재라면, ce는 재이다. 만들어진 지는 시간의 전후로 볼 때 pulcʰi가 앞서고 ce는 나중이다. 가끔 pulcʰi에는

불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ce는 그렇지가 않다. 위치상으로 볼 때 불을 탄 [+현장성]이 pulc<sup>h</sup>i에는 들어 있으나, ce는 [+현장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동성]이 들어 있다. 거름으로 사용됨은 마찬가지다.

⑥ monci : kudum

monci나 kudum은 다같이 먼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년층의 제보자는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한다. 곧 monci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kudum은 날아다니는 상태로 제보했다. 그러니 monci에는 [+상태성]이, kudum에는 [-상태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monci ilda 보다는 kudum ilda에서 확인되는 바다. monci는 중세 어휘 문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⑦ hǎmbæk : curək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hǎmbæk은 형겅의 뜻으로, curək은 헐떨어져서 찢어진 조각이나 닳아서 헐떨어진 옷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hǎmbæk은 피륙의 조각으로 자투리이기 때문에 [-완결성]이 강하나, curək은 옷으로 만들었다 헤어진 것이기에 [+완결성]을 내포하고 있다. hǎmbæk은 길거나 폭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curək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도에도 차이가 드러나 curək이 걸레로만 쓰인다면, hǎmbæk은 행주·붕대 대용·깍는데 쓰이는 재료 및 걸레로도 쓰인다. 장년층 이상에서만 확인된다.

⑧ kewa/kewa-s'om/poŋc<sup>h</sup>aŋ : cumeŋi : pogomci

kewa/kewa-s'om/poŋc<sup>h</sup>aŋ은 호주머니 뜻으로, cumeŋi는 주머니의 뜻으로, pogomci는 지갑의 뜻으로 사용된다. 중년층까지는 kewa/kewa-s'om/poŋc<sup>h</sup>aŋ과 pogomci를 혼동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kewa-s'om과 cumeŋi를 혼동하고 있으나 이는 kewa-s'om의 s'om 때문에 연유하는 듯하다.

kewa/kewa-s'om/poŋc<sup>h</sup>aŋ은 옷에 딸린 한 부분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에는 쓰일 수 없다. 곧 [+고정성]이 있다. kewa/kewa-s'om은 한자어 開化에 연원을 두고 있다.

cumeŋi는 따로 만든 물건으로 옷에 달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들고 다닐 수도 있다. [+고정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pogomci는 손에 따로

들고 다니는 물건만을 뜻하니 [-고정성]이다.

⑨ saŋc<sup>h</sup>u : puru

장·노년층에서는 puru가, 중년층 이하에서는 saŋcau가 쓰인다. 종류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다.

외형상 특징을 보면 saŋc<sup>h</sup>u는 그 앞이 주글주글한 것이 그 특징이다. 양 옆으로가 더 넓게 되어 있으며 배추처럼 포기로 자라고 포기로 수확한다. 만일 잎을 뜯어내더라도 즙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puru는 s'in-puru라 말해지는 것처럼 잎을 뜯어내면 희고 맛이 쓴 즙이 나온다. 잎모양도 옆으로 보다는 앞으로 길게 되어 있고 주글주글하지도 않다. 대에 잎이 붙어 자라는데 잎을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두고두고 수확한다.

puru는 중세 어휘에도 부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saŋc<sup>h</sup>u보다 이른 시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saŋc<sup>h</sup>u나 puru의 용도는 걸저리나 쌈용으로 같다.

⑩ c<sup>h</sup>in : pe : cul

c<sup>h</sup>in은 보자기 따위에 달려 그 자체를 잡아매는데 쓰이는 끈이라고 한다면, pe는 주로 짐을 지는데 쓰이는 바를 말한다. cul은 노·새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애기를 등에 업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싸고 묶고 하는 도구를 kalle-c<sup>h</sup>in이라고 하는데, 이 kalle-c<sup>h</sup>in은 얇고 작은 이불처럼 된 것의 윗가장자리에 끈이 달려 있다. 이 끈으로 잡아매는 것이다.

pe는 달리 cil-p<sup>h</sup>e/cil-pe라고도 하는데, 지다라는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질빵에 해당한다. 그러니 c<sup>h</sup>in은 끈에, pe는 참바에, cul은 줄에 해당된다. 장·노년층은 이 셋을 구분하고 있으나 중년층에서는 pe와 cul을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⑪ c<sup>h</sup>aŋci : pesəl

c<sup>h</sup>aŋci와 pesəl을 노년층에서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중년층에서는 혼동하고 있다. 노년층의 제보자들은 c<sup>h</sup>aŋci를 소화기관으로, pesəl을 배설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부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c<sup>h</sup>aŋci는 직선에 가깝다면 pesəl은 꼬불꼬불하게 구비져 있다. 성깔이 못되 먹은 사람을 두고 \*c<sup>h</sup>aŋci-

kutta라 하지 않는 반면 pesəl-kutta라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 형상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con-pesəl, hulgin-pesəl은 있지만 \*con-c<sup>h</sup>ajci나 \*hulgin-c<sup>h</sup>ajci는 없다.

⑫ nebok : anc<sup>h</sup>ip

이 nebok과 anc<sup>h</sup>ip을 혼동하는 제보자가 많았다. 가끔 사냥했던 사람이나 소·돼지를 잡았던 사람들은 구분하여 제보해 주었다. 그들에 따르면 nebok이면 아무 짐승이나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면 반면, anc<sup>h</sup>ip은 소나 돼지의 내장을 뜻한다고 한다. 특히 말의 먹을 수 있는 내장을 kəmin-cirəm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nebok은 식용할 수 있는 짐승의 내장을, anc<sup>h</sup>ip은 식용과 관계없이 소·돼지의 내장을 뜻한다. 각각 내포와 안접에 해당된다.

⑬ c<sup>h</sup>uk-tam : c<sup>h</sup>uk-porim

c<sup>h</sup>uk-tam은 짐체를 엮기 위하여 쌓은 담이라고 한다면, c<sup>h</sup>uk-porim은 c<sup>h</sup>uk-tam과 그 용도는 같으나 흙을 더 발랐다는 것이 다르다. 재료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생긴 것이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쉽게 확인된다.

⑭ həmul : pusiremi/puirəm : həlli

həmul과 pusiremi/puirəm은 종기의 규모에 따르는 차이가 있고, həlli는 다만 몸에 난 상처를 의미한다. həmul은 pusiremi/puirəm보다 규모가 큰 것을 두고 말한다. həmul과 həlli는 다같이 혈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həmul과 həlli는 확연하게 구분하나 həmul과 pusiremi/puirəm은 가끔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həmul을 s'ipcoŋ이라 하여 pusiremi/puirəm과 구분하기도 한다.

⑮ to : mok/moktari

to는 출입구라면, mok/moktari는 입구의 뜻만을 지닌다. 장년층 이상은 확연하게 구분하여 쓴다.

⑯ cire : kojsaŋ

다같이 키의 뜻으로 쓰이지만 cire는 사람에게, kojsaŋ은 마소 등 동물에만 연결된다. cire는 cilda 곧 길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중년층 이상이면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⑮ noŋsi/noŋso : joŋsi

noŋsi/noŋso나 joŋsi는 다같이 농사를 뜻한다.

noŋsi/noŋso가 밭에서 행해지는 모두 농사라고 한다면, joŋsi는 곡물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좁다. 장년층 이상에서는 구분하여 쓰나 중년층 이하에서는 noŋsi/noŋso가 빈번하게 쓰인다.

⑯ taggine : pulgine/kugine

taggine : pulgine/kugine는 다같이 고무래라는 연장을 말한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모양새와 용도에 있다. 모두 T자형으로 되어 있으나 pulgine/kugine의 자루가 taggine 보다 짧다. T자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taggine가 작다. 밑바닥도 taggine는 톱니바퀴형으로 들쭉날쭉되어 있으나 pulgine/kugine는 그냥 평평하다.

taggine는 곡식을 널 때에 사용되며, pulgine/kugine는 재를 밀거나 당길 때 쓰인다. taggine는 마당 등 넓은 공간에서 서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루가 길고, pulgine/kugine는 부엌 아궁이나 온돌 아궁이 앞에서 앉아 쓰기에 자루가 짧다.

taggine는 당기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반면 pulgine는 불에 그 연원이 있다.

⑰ te : namdeŋi/naŋdeŋi

다같이 식물의 줄기를 뜻한다. te는 살아있거나 수확하기 이전의 것이라면, namdeŋi/naŋdeŋi는 고사했거나 수확한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namdeŋi/naŋdeŋi는 나무를 뜻하는 나모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중년층 이상에서는 naŋ/nam(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쓰지만 그 이하는 te를 즐겨쓴다.

⑱ k'oraksani/k'orakci : sənjuŋ

k'oraksani/k'orakci는 일이나 사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sənjuŋ은 사 람에게만 사용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sənjuŋ을 시늉이라고 하나 이는 잘못 이다. 시늉은 suŋne라 하고, 그런 짓은 suŋ<sup>h</sup>ida라 하기 때문이다.

㉑ paŋsaŋ : kwendaŋ : pok<sup>h</sup>in

제보자에 따라 혼란이 이는 어휘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



다.

첫째 같은 성씨이면 pagsaŋ이 되고 성씨가 다르면 kwendaŋ이나 pokc<sup>h</sup>in이다.

둘째 가끔 kwendaŋ과 pokc<sup>h</sup>in은 같다. 특히 상가집에서는 그렇다. 다같이 두건을 쓴다거나 상복을 입기 때문이다.

셋째 pokc<sup>h</sup>in은 상가집에서만 부른다.

넷째 증조부모 제사에서는 pagsaŋ과 kwendaŋ이 서로 겹친다.

다섯째 간혹 c<sup>h</sup>inc<sup>h</sup>ok이 kwendaŋ으로 쓰이기도 한다.

㉔ norjə-cida : p<sup>h</sup>udə-cida : cap'a-cida : əp<sup>h</sup>ə-cida : s'irə-cida

서로 비슷해 보이나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있다.

norjə-cida는 사람이 힘이 없거나 균형을 잃어 갑자기 아래로 앉게 되다는 뜻을 지닌다. 바닥에 닿는 부위는 엉덩이가 된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이다. 상처가 나거나 안 나거나 문제되지 않는다. 내리다의 뜻을 지닌 norida와 관계있다.

p<sup>h</sup>udə-cida는 사람이 갑자기 균형을 잃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에 쓰인다. 바닥에 닿는 부위는 앞부분 전부일수도 있으나 일부분인 손과 다리, 가끔 얼굴도 포함된다.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cap'a-cida는 사람은 물론 일정한 높이를 지닌 사물이 바닥에 닿거나 닿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었을 경우에 쓰인다. 사람이나 사물에 따라 의미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인 경우는 바닥에 닿아야 하며 닿는 부위는 몸의 뒷부분 전부이다. 앞에서 본 norjə-cida보다 심한 경우다. 사물이라면 바닥에 닿거나 닿지 않거나 상관 없으며 방향과는 무관하다.

əp<sup>h</sup>ə-cida는 사람이나 그릇 같은 사물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뜻한다. 사람인 경우 바닥에 닿는 부위는 몸 앞쪽 전부이며, p<sup>h</sup>udə-cida보다 심한 경우이다. 사물이라면 위 아래가 서로 바뀌어진 상태를 말한다.

s'irə-cida는 사람이나 보리 같은 식물이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닥에 닿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어휘들에 대하여 제보자 대부분이 그 의미 차이를 알고 있으나 norjə-cida와 s'irə-cida는 중년층 이하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㉓ kumulda : cōmulda

중년층 이상의 제보자마다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kumulda는 그 달의 날자가 마지막에 가깝거나 그 해의 세모가 앞에 닳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반면, cōmulda는 해가 떨어져 어둡게 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달·해와 관련이 있다면 kumulda가, 하루와는 cōmulda가 서로 연관이 된다. kumulda는 중세 어휘 그물다, cōmulda는 점글다에 각각 그 연원을 두고 있다.

㉔ k'acuda : k'acuda/t<sup>h</sup>acuda

의미 차이가 있으나 혼동하는 제보자가 많았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확연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다. 깨다라는 기본 의미로 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k'acuda는 달갈이나 항아리 등 그릇 따위를 깨다라는 뜻으로, k'acuda/t<sup>h</sup>acuda는 부스럼 따위의 걸썩질을 따서 고름을 내다는 의미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k'acuda/t<sup>h</sup>acuda는 구멍을 내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의 크기에 따라 구별하는 제보자도 있었는데 이는 모음에 따른 어감에서 비롯된 듯하다.

㉕ nollida : nek'ida/tek'ida : mac<sup>h</sup>ida : ollida

다같이 던지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nollida는 나브죽한 물건을 던지는 것을 뜻한다. 사금파리로 물수제비뜨는 것처럼 던지는 것을 말한다. nek'ida/tek'ida는 물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을 지닌다. 던지다와 같다. mac<sup>h</sup>ida도 물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nek'ida/tek'ida와 같으나 어떤 목표를 겨냥하여 의식적으로 던진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반면 ollida는 방향의 문제로,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것으로 의미 구분을 하고 있다.

㉖ ərida : turida

나이가 적다라는 기본 의미에서는 같이 쓰이나 어리석음이 포함되면 turida라 쓰고 있다. 중년층 이하에서는 혼동하고 있는데, 기본 의미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㉗ nīt<sup>h</sup>uda : nugida

다같이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공간성]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시간성]에 있어서는 nugida만 쓰이고 있어, 그 범위가 nitc<sup>h</sup>uda보다는 nugida가 넓다. 중년층 이상에서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㉘ ancuda : ənguda

ancuda는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는 것을, ənguda는 여러 가지를 모아 일이 되게 하다는 뜻으로 구분하고 있다. ancuda에는 성질이 같은 것을 모으는 뜻이 세분되어 있어 잡동사니를 모으는 ənguda와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ancuda는 [+동질성][+집결성]이 있다면 ənguda에는 [-동질성][+집결성]과 함께 [+완결성]이 있음이 드러난다.

㉙ cipta : simda : copta

cipta는 고정된 물체를 손만 이용하여 잡는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copta는 고정된 물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손가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올린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simda는 움직이는 물체를 손으로만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다. 장·노년층에서는 구분하고 있으나 중년층 이하에서는 혼동을 보이고 있다.

㉚ kinda : hegalda : hes'ida

kinda는 노년층에만 사용하고 있는 반면, hegalda나 hes'ida는 중·장년층에서도 들을 수 있다. kinda는 조류의 발이나 갈구리 따위로 땅이나 모아놓은 물건을 파헤치는 것이라면, hegalda는 동물이나 사람에 의해 쌓아놓은 물건이 넓게 어지럽혀 늘어놓는 것을 뜻한다. 반면 hes'ida는 동물이나 사람에 의해 쌓는 놓은 물건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kinda는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없으나 hegalda는 헤집다에, hes'ida는 헐다에 가깝다.

㉛ c'icida : porida

찢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으나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제보자에 따르면 c'icida는 일이나 부피가 있는 물건을 몇 가닥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porida는 너비가 있는 종이나 형겅 따위를 찢는 것을 말한다. 장·노년층에서는 확연하게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나 중년층 이하에서는 혼동을 보이고 있다.

㉔ p'ida : c'irida : not<sup>h</sup>a

다같이 파종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년층 이상에서는 그 뜻을 구분하고 있다.

p'ida는 뿌리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앗을 손으로 뿌리는 것을 말한다. c'irida는 구덩이를 만들어 씨앗을 몇 알씩 박는 것으로 호박 따위와 호응하고 있다. p'ida가 씨앗이 자랄하다고 하면, c'irida는 그 씨앗이 크기가 크다. not<sup>h</sup>a는 고구마와 호응하는데, c'irida와 마찬가지로 구덩이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㉕ kəkkodek : kogijok/kogegok

kəkkodek은 암닭의 울음소리를, kogijok/kogegok은 수닭의 울음소리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 꼬끼오와 꼬꼬에 해당한다.

㉖ wa : waj

말의 걸음을 멈출 때를 wa, 소를 멈출 때를 waj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말을 걷게 할 때는 ərəɾə가, 소인 경우는 məsikke로 구분하고 있음도 다르다.

㉗ əraŋ-əraŋ : əllaŋ-əllaŋ

어떤 물건이 빛이 난다거나 윤기가 있다는 뜻을 지닌다. 차이가 있다면 əraŋ-əraŋ은 식물의 이파리 따위에 쓰여 [+생물성]이라고 하면, əllaŋ-əllaŋ은 거울처럼 [-생물성]하고만 호응한다는 차이가 있다.

㉘ p<sup>h</sup>ənc'ik : p<sup>h</sup>inc'ik

p<sup>h</sup>ənc'ik은 씻은 듯이 아무 것도 없거나 아니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말짱다는 의미가 있다면, p<sup>h</sup>inc'ik은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으로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㉙ nənc<sup>h</sup>ak : nin<sup>h</sup>ak

nənc<sup>h</sup>ak은 어떤 물건이 본래 모양이 없어지게 아주 납작하게 눌려진 상태라고 한다면, nin<sup>h</sup>ak은 비나 물로 미끄러워진 땅이나 바위를 밟았을 때 밀려나가는 상태나 허전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

2.3. 지시의 대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인데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명칭이 통합되는 경우는 동·식물 이름에서 아주 많이 발견된다. 이는 지시 대상이 엇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시하는 도감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서도 연유한다. 실제 대상을 제시한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설령 실물을 제시한다 하여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아주 세분해서 제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조사자도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식물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김중철 선생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식물 이름인 경우( )속의 숫자는 이창복의 <대한식물도감, 1982, 향문사>에 실린 그림의 번호를 뜻한다.)

① nunenuni/nuninuni

하루살이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눈에놀이와 혼동한 결과이다. <혼몽자회>에는 눈에놀이가 누네노리로, 하루살이가 하루살리로 나타나 별개의 사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보자들의 관념에는 하루살이의 방언형이라 추정되는 하루살이가 눈에놀이의 nunenuni/nuninuni에 통합된 것이다. 사실 하루살이와 눈에놀이는 몸체가 작다는 것과 때 지어 날아다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nakci/cuk'umi

지역에 따른 차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낙지와 주꾸미를 혼동한 결과 통합된 예이다.

권오길 등의 <원색한국패류도감>(1993, 아카데미서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낙 지 : 내만의 진흙 속 깊이 굴을 파고 있으며 팔을 밖으로 내어 먹이를 잡는다. 외투장에 비하여 다리가 매우 길며 제1완이 특별히 길고 수컷의 제3완은 혀 모양을 하며 교접에 쓴다.

주꾸미 : 내만의 수심 10m 깊이에 산다. 소형으로 흰색(모래색)을 띤다. 눈과 눈 사이에 긴 사각형의 무늬가 있고 눈의 아래 양쪽에 바퀴 모양의 동그란 무늬가 있으며 모두 금색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낙지는 육지에서 나는 낙지이며, 제주의 것과는 모양이 다르다. 여기에서 혼동이 생기는 것 같다.

③ kamagwi-wecul

개승마(1459)와 꿩이밥(1999)의 이름이다. 잎과 꽃모양은 다르나 줄기가 옆으로 벌어진다는 공통점에서 연유하는 혼동이다.

④ kasiregi-naŋ

사스레피나무(2172)와 섬쥐똥나무(2471)의 이름이다.

⑤ kasi-naŋ

가시나무(1115)와 상수리나무(1096)의 이름이다. 참나무과로 과가 같고 열매도 비슷하다.

⑥ kamint<sup>h</sup>al-naŋ

검은딸기(1768)와 복분자딸기(1764)의 이름이다. 열매의 색깔은 각각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차이가 있으나 잎 모양이 비슷하다. 같은 장미과다.

⑦ kaŋseŋi-p<sup>h</sup>ul/koŋraci

강아지풀(466)과 개밀(362)의 이름이다. 같은 벼과로 잎모양이 비슷하다.

⑧ ket<sup>h</sup>oŋ-naŋ

누리장나무(2574)와 돈나무(1692)의 이름이다.

⑨ keot-naŋ

검양욱나무(2058)와 율나무(2061)의 이름이다. 같은 율나무과로 겉모양이 비슷하다.

⑩ kəbuk-naŋ

푸조나무(1136)와 풍계나무(1135)의 이름이다. 같이 느릅나무과에 속한다.

⑪ koŋeŋi-p<sup>h</sup>ul

꿩이밥(1999)과 계요등(2778) 그리고 가는잎할미꽃(1386)의 이름이다.

⑫ kote

조릿대(319)와 제주조릿대(318)와 그리고 갈대(430)의 이름이다. 조릿대와 제주조릿대는 모양이 비슷한데서, 갈대는 그 이름이 kote/와 같기 때문에 통합된 예이다.

⑬ k'wəŋ-manəŋ

달래 (823)와 산달래 (815)의 이름이다. 겉모양이 비슷하고, 뿌리줄기가 썩알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된 예이다.

⑭ k'wəŋ-tʰal

산호수 (2416)와 자금우 (2417)의 이름이다. 같은 과이며 겉모양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비슷하다.

⑮ nuruk-naŋ

느릅나무 (1124)와 참느릅나무 (1119) 그리고 센달나무 (1136)의 이름이다. 느릅나무와 참느릅나무는 같은 과이며 겉모양도 비슷하다.

⑯ nɔndok-naŋ

개산초 (2004)와 왕초파 (2005)의 이름이다. 같은 과에 속하며 겉모양도 비슷하다.

⑰ tak-naŋ

꾸지나무 (1143)와 닥나무 (1142)의 이름이다. 같은 과에 속하며 겉모양도 비슷하다.

⑱ tocaŋ-naŋ

섬회양목 (2053)과 회양목 (2058)의 이름이다. 나무의 단단한 재질에 연유한 이름이다.

⑲ mak'e-naŋ

머귀나무 (2008)와 말채나무 (2374)의 이름이다. 나무의 용도가 같은 데서 통합된 예이다.

⑳ mul-ot

개구리밥 (734)과 줌개구리밥 (735) 그리고 무릇 (843)의 이름이다. 개구리밥과 줌개구리밥은 물기를 좋아하는 데서, 무릇은 그 발음이 비슷한 데서 통합된 예이다.

㉑ molmak'e-naŋ

말채 나무 (2734)와 곰의말채 (2375)의 이름이다. 용도와 함께 식물 이름에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통합된 예이다.

㉒ podŋi-naŋ

용버들 (1028)과 갯버들 (1046), 버드나무 (1025)의 이름이다. 과도 버드나무과로 다 같고, 버드나무에 이끌린 통합의 경우다.

㉓ pejɔm-kosari

밤풀고사리 (39)와 고비 (37)의 이름이다. 같은 과에 속하며 겉모양이 비슷하다.

㉔ pejɔm-kocaŋ

광대나물 (2609)과 자주괴불주머니 (1538)의 이름이다.

㉕ pon-sok

풀숨나물 (2903)과 떡쑥 (2901)의 이름이다. 국화과로 과가 같다.

㉖ sadegi

새덕이 (1515)와 생달나무 (1509)의 이름이다. 다같이 녹나무과로 열매 색깔이 같다. 겉모양도 비슷하다.

㉗ sabal-k'ot

수국 (1676)과 산수국 (1677) 그리고 바위돌꽃 (1613)의 이름이다. 꽃 모양이 같다.

㉘ saogi

벚나무 (1813)와 왕벚나무 (1811)의 이름이다. 장미과로 과가 같고 겉모양도 비슷하다. 꽃에 차이가 있으나 용도는 같다.

㉙ saŋgoci

팽이사초 (514)와 향부자 (705)의 이름이다.

㉚ səri-naŋ

개서어나무 (1079)와 까치박달 (1078)의 이름이다.



㉑ sori-nag

소리쟁이 (1192)와 졸참나무 (1102)의 이름이다.

㉒ suri-te

이대 (322)와 구릿대 (2351)의 이름이다. 겉모양이 비슷하다.

㉓ sik-nag

식나무 (2370)와 참식나무 (1514)의 이름이다.

㉔ alurebi-nag

덜꿩나무 (2815)와 가막살나무 (2816)의 이름이다. 인동과로 과가 같다. 꽃과 열매 모양이 비슷하다.

㉕ ce-nag

노린재나무 (2448)와 자작나무 (1066), 명아주 (1261)의 이름이다.

㉖ cin-phul

별꽃 (1321)과 뽕리뱅이 (3157)의 이름이다.

㉗ c<sup>h</sup>o-nag

상수리나무 (1096)와 물참나무 (1107) 그리고 떡갈나무 (1099)의 이름이다. 참나무과로 과가 같다.

㉘ c<sup>h</sup>onsag-phul

망초 (2964)와 개망초 (2962)의 이름이다. 같은 국화과이다.

㉙ k<sup>h</sup>oŋ-t<sup>h</sup>al

명석딸기 (1761)와 복분자딸기 (1764)의 이름이다. 열매 모양이 비슷하다.

㉚ haribi-kocaŋ

가는할미꽃 (1382)과 할미꽃 (1384)의 이름이다. 같은 미나리아재비과로 겉모양과 꽃모양이 같다.

### III

지금까지 일부 어휘이기는 하지만 현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특수 의미를 지닌 어휘,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어휘, 대상이 통합되는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순수어미론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지만 얻어진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방언학에서 중요시했던 제보자는 60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년층 제보자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연령층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통합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특수한 의미는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에서 연유되고 있다.

셋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그 주변적이고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았다.

넷째, 같은 어휘이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는 노년층일수록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섯째, 대상물이 다르면서도 같은 이름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동·식물 이름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겉모습이 비슷한데서 연유하고 있으며 구별할 필요성도 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권오길외 2인(1993):「원색 한국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이기갑(1986):「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1990):“방언 어휘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이익섭(1981):「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 출판부.  
이창복(1982):「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이희승(1982):「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전광현(1972):“방언의 어휘론적 시고(1)”, 「한국언어문학」 10호, 한국언어  
문학회.

•  
제주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한글학회 (1992) : 「우리말큰사전」 (1~4), 어문각.

현평효 (1962 · 1985) :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정연사.

사회과학원어학연구소 (1992) :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